

종편 4사 시사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사용 실태 기획 조사II

- 방송언어 품위를 중심으로 -

1. 조사 목적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어지러운 시국으로 시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방송에서도 예능 프로그램의 화제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시사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눈에 띄게 올라 연일 신기록을 갱신하는 등의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¹⁾ 특히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시사 이슈에 예능적인 요소를 가미하거나 다양한 패널들을 초대하여 토크쇼의 형식으로 편성하는 등 시청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종편(보도 채널을 포함하여)들은 시청률 상승에 따른 광고 수익 증대로 경영 수지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 역설적이지만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 정국이 종편을 살렸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보도 프로그램이 지녀야 할 품위를 저해하는 요소들도 드러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17년 제2차 보고서에 이어 오후 4시~6시대 종편 4사 시사 프로그램의 방송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²⁾ 이번 기획 조사는 방송 언어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오후 4시~6시대 종편 4사 시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여 ‘언어 규범 및 어문 규정’과 ‘방송 품위를 저해하는 표현’의 두 항목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지난 제2차 보고서에서 ‘언어 규범 및 어문 규정’ 항목을

1) ‘최순실 사태’로 예능 화제성 22.1% 얼어붙어...네티즌의 관심은 시사 프로그램으로’(세계일보, 2016. 11. 8.), ‘막장 현실, TV시청 패턴 바꿨다...뉴스룸·썰전·그것이 알고싶다 등 뉴스·시사 프로그램 시청률 '경충'’(뉴스핌, 2016. 12. 9.), ‘썰전 시청률 1위 8.614%, 지상파도 제쳤다...알찬 200회 특집’(매일신문, 2017. 1. 6.), ‘맥 못 추는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기자협회보, 2017. 1. 19.),
2) 2017년 제2차, “종편 4사 시사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사용 실태 I -언어 규범과 어문 규정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방송 품위를 저해하는 표현을 중심으로 하여 방송 언어의 사용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세부적인 조사 항목은 2016년 제23차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랐다. 방송 품위를 저해하는 표현은 아래 표의 하위 항목에 따라 ‘유행어, 통신언어, 은어’, ‘비속한(저속한) 표현, 비속어, 욕설’, ‘비하 표현, 차별적 표현’, ‘과장된 표현’, ‘폭력적 표현, 과격한 표현’, ‘선정적 표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분석 항목 | 하위 항목 |
|----------------|--|
| 방송 품위를 저해하는 표현 | 1. 유행어, 통신언어, 은어 2. 비속한(저속한) 표현, 비속어, 욕설 3. 비하 표현, 차별적 표현 4. 과장된 표현 5. 폭력적 표현, 과격한 표현 6. 선정적 표현 |
| 언어 규범에 어긋나는 표현 | 7. 반말 표현 8. 잘못된 존칭 표현 9. 예의에 어긋난 표현 |
|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표현 | 10.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11.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표현(비표준어) 12. 비문법적 표현(과도한 줄임말, 어법에 맞지 않는 조어 등) 13. 맞춤법 오류 14. 띄어쓰기 오류 15. 로마자 및 한자 표기 16. 이모티콘 및 특수 언어 17. 발음 오류 18. 기타(긍정적인 자막 활용) |

<표 1> 2016년 제23차 보고서의 분석 항목과 하위 항목

2. 조사 대상

- 조사 기간: 2016. 12. 26.(월)~12. 28.(수)
- 조사 대상: JTBC <정치부 회의>,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 MBN <뉴스&이슈>, 채널A <정연욱의 쾌도난마>(각 3편, 총 12편)

| 방송사 | 프로그램명 | 방송 일시 | 출연자 |
|------|-------------|---|--|
| JTBC | <정치부 회의> | 2016. 12. 26.(월) ~2016. 12. 28.(수) 오후 05:10 | 진행: 이상복 취재: 양원보, 최종혁, 정강현, 임소라, 강지영 |
| TV조선 | <박종진의 라이브쇼> | 2016. 12. 26.(월) 오후 05:50 | 진행: 박종진 출연: 김민전, 진성호, 차명진, 헌경병, 구상찬 |
| | | 2016. 12. 27.(화) 오후 05:50 | 진행: 박종진 출연: 김진, 김성태, 오세훈 |
| | | 2016. 12. 28.(수) 오후 05:50 | 진행: 박종진 출연: 하태경, 김경진, 김동길 |
| MBN | <뉴스&이슈> | 2016. 12. 26.(월) 오후 04:30 | 진행: 김은혜 출연: 주호영, 고영신, 진성호, 김성완, 이현중 |
| | | 2016. 12. 27.(화) 오후 04:30 | 진행: 김은혜 출연: 손봉호, 최병목, 신지호, 김성완, 양지열 |
| | | 2016. 12. 28.(수) 오후 04:30 | 진행: 김은혜 출연: 한화갑, 고영신, 이진곤, 진성호, 김근식, 나경원 |
| 채널A | <정연욱의 쾌도난마> | 2016. 12. 26.(월) 오후 04:10 | 진행: 정연욱 출연: 최병목, 여상원, 김철근, 김홍국 |
| | | 2016. 12. 27.(화) 오후 04:10 | 진행: 정연욱 출연: 하태경, 고영신, 정옥임, 허성무, 김광덕 |
| | | 2016. 12. 28.(수) 오후 04:10 | 진행: 정연욱 출연: 신지호, 이현중, 이종근, 최병목 |

3. 조사 항목

가. 방송 품위를 저해하는 표현

- 1) 유행어, 통신언어, 은어
- 2) 비속한(저속한) 표현, 비속어, 욕설
- 3) 비하 표현, 차별적 표현
- 4) 과장된 표현
- 5) 폭력적 표현, 과격한 표현
- 6) 선정적 표현

4. 종편 4사 시사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사용 실태

가. 방송 품위를 저해하는 표현

1) 유행어, 통신언어, 은어

- ㉠ 쉽게 말하면 그 유승민표 정책이 너무 좌클릭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일부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JTBC, <정치부 회의>, 12월 26일, 최종혁)
- ㉡ 흠수저 출신 아닙니까? / 아주 흠수저 중에 대표적인 흠수저입니다. 그런데 이 흠수저 인생이 대통령 후보급으로 오른 데는 법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 12월 27일, 김진)
- ㉢ 저희 팀의 귀요미인 우리 양원보 반장을 디스하는 발언이 있던 데.(JTBC, <정치부 회의>, 12월 28일, 이상복)
- ㉣ 뭐 지금 박영선 의원 기자 출신이니까 뽕치기라고 기자들이 주로 언론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써 가면서 지금 한 시간 이십분여 지금 이상을 서울구치소에서 이렇게 최순실 씨의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MBN, <뉴스&이슈>, 12월 26일, 고영신)
- ㉤ 지금 뭐 보안 손님도 아니고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들어갈 텐 데(MBN, <뉴스&이슈>, 12월 27일, 김성완)
- ㉥ 두 평짜리 독방은 범털이라 불러요. 우리가 범털 개털이라고. 돈 없는 사람 개털이고 돈 있고 백 있는 사람은 범털이라고 부르는데. / 그러면 범털형인가요? / 범털형이죠, 어 범털형이고.(채널A, <정연욱의 캐도난마>, 12월 27일, 하태경, 정연욱)

㉠과 ㉡은 유행어를 사용한 경우다. ㉠은 특정 정치인이 제시한 정책

의 성격을 나타내는 데 ‘좌클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좌익 성향을 가리켜 ‘좌클릭’이라고 하며, 반대로 우익 성향을 나타낼 때에는 ‘우클릭’이라고 한다. 조사 대상 프로그램에서 ‘우클릭’은 한 번 조사된 반면, ‘좌클릭’은 11번이나 조사되었다. ㉠에서의 ‘흙수저’, 즉 ‘흙으로 만든 수저’는 부모의 능력이나 집안 배경,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반의어인 ‘금수저’는 부모의 능력이나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생활에 전폭적인 지지와 여러 혜택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사회적 계급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부모의 사회적 계급에 따라 자식들의 사회적 계급도 정해진다는 일명 ‘수저계급론’이 형성되면서 생긴 신조어다.

㉡에서의 ‘귀요미’는 인터넷상에서 생긴 통신언어의 대표적인 예다. 명사 ‘귀염’에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이’를 결합한 형태인 ‘귀염이’를 통신언어의 특징인 소리 나는 대로 쓰고, ‘ㄱ’을 ‘ㅇ’로 바꾸어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을 주고 있다.³⁾

㉢, ㉣, ㉤은 은어를 사용한 경우다. ㉢에서의 ‘뺨치기’는 언론계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취재 대상을 무작정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에서의 ‘보안 손님’은 대통령 경호실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대통령을 접견하는 사람 중에서 출입증을 달지 않고서도 별도로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에서의 ‘범털’은 죄수들의 은어로,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거물급 재소자를 가리키는 말이며, ‘개털’은 돈이나 뒷줄이 없는 일반 재소자를 뜻하는 말이다. 돈 많고 권세 있는 재소자를 수용한 감방은 ‘범털방’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범털’을 넓은 독방을 의미한다고 하다가 돈과 권세를 가진 죄수를 의미한다고 하는 등 은어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공적인 성격을 지닌 방송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특정 계층 또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은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시사 프로그램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은어를 사용할 경우

3)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이’가 사용된 예로는 ‘뽕뽕이’, ‘뽕뽕이’, ‘젓먹이’ 등이 있다.

에는 은어의 뜻을 설명하는 말이나 자막을 덧붙여 다수의 시청자들이 뜻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비속한(저속한) 표현, 비속어, 욕설

- ㉠ 소위 반정부 종북 좌파 문화인들을 슈아내서 정부 지원 끊고, 방송에서도 쫓아내고, 그야말로 밥줄을 끊어 놓겠다라는 문화계 숙청 사업입니다.(JTBC, <정치부 회의>, 12월 28일, 양원보)
- ㉡ 국제 수배령 때리면은 어떻게 금방 잡을 수 있습니까?(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 12월 28일, 박종진)
- ㉢ 아니 그 세다는 그 이빨 입 세, 이빨 센 김성태 위원장으로 이런 분들이 박영선 의원 다 들어가 있는데도 지금 몇 시간째 아예 최순실을 불러내지도 못하고 있거든요.(MBN, <뉴스&이슈>, 12월 26일, 진성호)
- ㉣ 서로 지금 니가 나쁘다 넌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국민이 불안해서 못 삽니다.(MBN, <뉴스&이슈>, 12월 27일, 손봉호)
- ㉤ 자기는 왕따를 당했는데 / 모색했다가 완전히 왕따가 돼 버렸어요.(채널A, <정연욱의 캐도난마>, 12월 28일, 최병목)

㉠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업을 설명하면서 비속어인 ‘밥줄’을 사용한 경우다. ‘밥줄’은 벌어서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반대파를 처단하거나 제거한다는 뜻을 지닌 ‘숙청’을 함께 사용하여 내용을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였다.

㉡에서는 ‘수배령을 때리다’라는 비속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속되게 말할 때, ‘때리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지양해야 할 표현이다.

㉢은 말재주가 좋음을 속되게 표현한 ‘이빨이 세다’를 사용한 경우고, ㉣에서는 사람 또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인 ‘놈’을 사용하였다.

㉤에서는 따돌림을 심하게 당하는 사람을 속되게 표현한 ‘왕따’를 사

용하였다. ‘왕따’는 원래 은어였으나 단어의 쓰임이 광범위해지면서 은어의 성격을 잃게 되었다.

교양과 품위를 지켜야 할 시사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속한 표현을 여과 없이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밥줄’ 대신 ‘일자리’, ‘직장’, ‘때리다’ 대신 ‘내리다’, ‘이빨이 세다’ 대신 ‘말재주가 좋다’ 등을 사용하여도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품위 있게 잘 표현할 수 있는 만큼 방송에서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비하 표현, 차별적 표현

- ㉠ (임소라: “조운선 의원이 얼굴이 얼짱이다. 닥고는 싶은데 닥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했고요.) 가슴 아픈 얘기네요. / 닥을 순 없죠.(JTBC, <정치부 회의>, 12월 28일, 양원보, 이상복)
- ㉡ 그게 이제 김포공항 장애라는 거죠. / 아, 김포공항 장애입니까?(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 12월 26일, 구상찬, 박종진)
- ㉢ 애들이 생매장돼서 이렇게 죽어 들어가는 데도 대통령은 아무 생각 없이 멍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 이 생각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이게.(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 12월 28일, 김경진)
- ㉣ 이걸 보면은 박 대통령이 인지 장애가 있었나, 왜 그럴까.(MBN, <뉴스&이슈>, 12월 26일, 김성완)
- ㉤ 최순실은 자기 시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 국가의 왕이 백성의 재산이 전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시녀 재산이 자기 거죠 뭐.(채널A, <정연욱의 쾌도난마>, 12월 26일, 여상원)
- ㉥ 결국 정윤희 씨가 어떤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측근에 있는 거에, 있으니까 그 최순실과 그것들은 시기가 했다는 것이죠.(채널A, <정연욱의 쾌도난마>, 12월 28일, 이현종)
- ㉦은 앞서 한 여성 의원이 다른 여성 의원의 얼굴이 예뻐서 닥고 싶

는데 답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농담처럼 말한 것을 프로그램 출연진들이 이야기한 것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녀야 할 기자와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외모를 낮잡아보는 투로 말하는 모습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은 최순실 씨가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공항 장애’를 ‘공항 장애’라고 잘못 적은 것을 놀림조로 말하는 상황이다. ‘공항’을 장소의 의미에 빗대어 ‘김포공항’이라고 하였는데 이 외에도 ‘에어포트 장애’ 등으로 비아냥거린 경우도 있었다.

㉡은 세월호 사건 당시에 대통령이 행동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패널이 추측한 것을 바탕으로 발언한 것이다. 사실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할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작위적으로 폄하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은 해외를 방문한 박 대통령이 호텔 숙소에서 사용할 물품이나 시설물 곳곳에 온통 라벨을 붙여달라고 했다는 일화에 대한 패널의 발언이다. 인지 장애가 있다는 식으로 상대방을 업신여겨 낮추어 보는 발언을 하였다. 상대방이 아무리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비판이 아닌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산 관계를 추측한 패널의 발언이다. 두 사람의 재산에 경계가 없었다는 것을 ‘시녀’, ‘시녀 재산’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비하하는 표현을 하였다.

㉤에서는 최순실 씨의 주변 사람들을 가리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3인칭 대명사 ‘그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므로 방송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 혹은 자신과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을 객관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비하해서 말하거나 차별하는 투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언행이다.

4) 과장된 표현

- ㉠ 29명, 30명. 뭐 한 명 차이지만 어감 차이가 확 나지 않습니까?(JTBC, <정치부 회의>, 12월 27일, 양원보)
- ㉡ 그 내용을 지금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예언서예요. 완전히 정감록이에요. 100% 똑같아요.(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 12월 28일, 하태경)
- ㉢ 그리고 뭐 (최순실 씨가) 레이저 광선 쏘는 그런 뭐 모습도 보여줬고.(MBN, <뉴스&이슈>, 12월 26일, 고영신)
- ㉣ 지금 그 나온 얘기 보면 개헌이 대선 전에 쉽지 않다. 이건 뭐 다 그 세 살배기 어린애도 다 알아요.(MBN, <뉴스&이슈>, 12월 27일, 신지호)
- ㉤ 그냥 들어와서 자 나는 뭐 성추권에서 내려왔으니까 자 내 앞으로 다 일렬로 줄 서라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채널A, <정연욱의 쾌도난마>, 12월 28일, 최병목)

㉠에서는 기존 정당을 탈당하고 신당에 입당한 의원들의 숫자를 얘기한 경우다. 탈당 인원이 당초 예정됐던 것과 달리 숫자가 1명 줄어든 것을 놓고, 숫자 맨 앞자리가 달라서 어감 차이가 확 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은 패널이 2014년 12월에 일어난 정윤희 문건 파동의 문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말한 경우다. 당시의 문서가 현재 밝혀지고 있는 국정 농단 사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예언서’, ‘정감록’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현 상황과 ‘100%’ 똑같다고 부풀려 말하였다.

㉢은 최순실 씨가 외관상으로 보기에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패널의 말로, 최순실 씨가 노려봤던 경우를 두고 ‘레이저 광선’을 쏜다고 표현하였다.

㉣은 모든 사람들을 ‘세 살배기 어린애’에 비유하여 표현하였고, ㉤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성추권’에 있는 인물에 비유하여 과장되게 말하였다.

시사 프로그램의 성격상 특정 인물의 발언이나 행동을 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다고 추측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과장된 표현은 없는 말을 만들어 내거나 사실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5) 폭력적 표현, 과격한 표현

- ㉠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포문을 열면서 대선 혈투의 막이 올랐습니다.(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 12월 27일, 박종진)
- ㉡ 박영수 특검팀이 또 칼날을 무엇을 겨루고 있을까요?(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 12월 28일, 박종진)
- ㉢ 오늘 여성 의원 그리고 여성 장관의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MBN, <뉴스&이슈>, 12월 28일, 김은혜)
- ㉣ 악, 악마의 변호사라고 / 본래 그걸 우리 법원에서는 악마의 증명이라 그러는데(채널A, <정연욱의 쾌도난마>, 12월 26일, 최병목, 여상원)
- ㉤ 개혁보수신당 이해훈 의원의 전투력이 대단하네요.(JTBC, <정치부 회의>, 12월 28일, 이상복)
- ㉥ 이게 참 자꾸 열불을 지르는 거예요.(채널A, <정연욱의 쾌도난마>, 12월 28일, 정연욱)

㉠, ㉡, ㉢은 폭력적인 표현을 한 경우다. ㉠에서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발언을 시작한 것을 ‘포문을 열다’로 표현하고, 대선 경선을 ‘혈투’에 빗대었다. ㉡에서는 목표물을 향해 방향을 잡는 것에 대해 ‘칼날을 겨누다’로 말하였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조준하다’, ‘정조준’이 많이 쓰이고 있다. ㉢에서는 서로 심하게 비난하고 헐뜯는 말싸움을 ‘난타전’에 비유하였는데 ‘난타’는 마구 때린다는 의미를 지닌, 매우 폭력적인 표현이다.

㉣, ㉤, ㉥은 과격한 표현을 한 경우다. ㉣에서는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사건만 맡아 악명을 떨친 변호사의 별명을 일컬어 ‘악마의 변

호사'라고 하였으며, 뇌물 수수를 법원에서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마의 증명'이라고 표현하였다. ㉠에서는 다른 사람과 겨루고자 하는 의지를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하는 '전투력'으로 말하였다. ㉡에서는 진행자가 '열불을 지른다'라는 다소 과격한 말을 하였다.

6) 선정적 표현

- ㉠ 이게 총선에 의한 국민의 민의가 아니라 일단 별거를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갈등 때문에 서로 갈라서게 된 건데(MBN, <뉴스&이슈>, 12월 27일, 김은혜)
- ㉡ 아 요새는 이혼하고 이 재혼 삼혼 사혼한 사람도 있는데 옛날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누가 현실 감각에 맞은 얘기를 하느냐.(MBN, <뉴스&이슈>, 12월 28일, 한화갑)
- ㉢ 촛불집회에서 “가짜 썩은 보수를 불태워 버려야 한다.” 공교롭게도 아무런 인과 관계는 없겠지만 지금도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실화인지 방화인지. 어쨌거나 그 말이 있는 직후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큰 불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가 생겼었습니다.(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 12월 27일, 김진)

㉠과 ㉡은 ㉠에서는 당내 분열을 부부의 관계에 비유하여 '별거', '갈라서기'로 표현하고 있으며, ㉡에서는 특정 정치인이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여러 정당에서 직책을 맡은 것을 두고 '이혼', '재혼', '삼혼', '사혼'에 빗대어 말하였다. 굳이 이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을 하지 않아도 뜻이 충분히 전달되는 만큼 발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은 촛불집회에서 한 정치인이 발언한 것을 두고,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 사건과 연관 짓기 어렵다는 것을 패널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 때문에 화재가 일어난 것처럼 침소봉대한 경우다. 실제로 서문시장의 화재는 누전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정적인 표현은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진행에 불필요한 선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해당 방송의 출연진과 제작진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5. 결론

지금까지 오후 4~6시대 종편 4사 시사 프로그램의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보고서는 언어특위 종편 시사 프로그램 기획 조사의 두 번째 편으로, 방송 품위를 저해하는 표현을 중심으로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본 조사의 특징으로는 상당수의 은어가 조사된 것을 들 수 있다.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유행어·통신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특정 집단에서만 사용하는 은어를 제시한 사례가 다수 조사되었다. 시사 프로그램의 특성상 은어를 제시해야 할 경우에는 은어의 뜻도 같이 제시하여 시청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송의 공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종편에서는 자질을 갖춘 진행자와 패널 선정이 요구된다. 수준 낮은 패널들이 돌아가면서 출연하여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극복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일부 종편에서 간부급 기자들을 대거 출연시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비하·차별적 표현, 과장된 표현, 폭력적·과격한 표현에 해당되는 사례는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조사되었는데 이는 격렬하고 과장된 말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만큼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 지녀야 할 시사 프로그램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방송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퍼지는 데다 시청자들 역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방송언어에 쉽게 길들여지거나 모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언어 순화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7년 제2차 보고서와 이번 제3차 보고서에서는 오후 4~6시대의 종편 시사 프로그램의 방송언어를 언어 규범적인 측면과 방송 품위 저해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제4차 보고서부터는 오후 6시 이후의 종편 시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여 두 차례에 걸쳐 방송언어의 사용 실태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종편 4사 시사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사용 실태Ⅱ 1부.

<붙임>

종편 4사 시사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사용 실태 기획 조사II
- 방송언어 품위를 중심으로 -

가. 방송 품위를 저해하는 표현

1) 유행어, 통신언어, 은어

| 프로그램 | 방송일시 | 발화자 | 내용 |
|---------------------|---------|-------------------|--|
| JTBC <정치부 회의> | 12월 26일 | 최종혁 | 쉽게 말하면 그 유승민표 정책이 너무 <u>좌클릭</u>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일부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
| | 12월 27일 | 최종혁 | 청문회에서 <u>사이다</u> 발언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았 습니다. |
| | | 임소라 이상복 최종혁 | 왜냐하면 너무 <u>돌직구</u> 거든요. / 정말 <u>돌직구</u> 인생 이네요. / <u>돌직구</u> 를 날렸더니 대통령도 “그럼 그 령게 하시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 이렇 게 또 <u>돌직구</u> 를 날린 겁니다. |
| | 12월 28일 | 이상복 | 이들이 이제 <u>보안 손님</u> 으로 분류돼서 청와대를 무단으로 들락날락했고요. |
| | | 양원보 최종혁 |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그 <u>좌클릭</u> 정책에 불만을 나타내서 이제 탈당 대열에 막판에 합류하지 않았다. / 뭐 이렇게 <u>좌클릭</u> 논란이 계속되니까. |
| | | 이상복 | 저희 팀의 <u>귀요미</u> 인 우리 양원보 반장을 디스하 는 발언이 있던데. |
|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 | 12월 26일 | 김민전 | 이 정부 들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u>헬조선</u> 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란 생각 합니다. |
| | 12월 27일 | 김진 | <u>흠수저</u> 출신 아닙니까? / 아주 <u>흠수저</u> 중에 대표 적인 <u>흠수저</u> 입니다. 그런데 이 <u>흠수저</u> 인생이 대 통령 후보급으로 오른 데는 법이 없었으면 안 되 는 거예요. |
| | | 박종진 오세훈 | 진짜 보수 한다더니 <u>좌클릭</u> 하는 거 아니냐 우려 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 유승민 의원의 뭔가 지금 여러 가지 <u>좌클릭</u> 된 것 아니냐. / 개혁이라 는 단어가 너무 <u>좌클릭</u>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 실제로 현재에 남아있는 새누리당 정당 정책을 보면 굉장히 <u>좌클릭</u> 되어 있습니다. / 새로 만들어 진 개혁보수신당이 지나치게 <u>좌클릭</u> 할 것을 걱정 할 정도의 인선인가. |
| | 12월 28일 | 박종진 | 아니, 우 수석도 <u>흠수저</u>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 재벌가에서 딱 눈여겨보고 딱 그랬는데. |

| | | | |
|----------------|-----------------------|------------|--|
| | | 자막 | 신당 합류 보류한 나경원 “좌클릭” 우려 |
| MBN <뉴스&이슈> | 12월 26일 | 고영신 | <u>갑질</u> 을 하나요? 그 안에서도 <u>갑질</u> 하는지 모르겠지만 |
| | | 자막 고영신 | 국정조사 위원들이 지금 여기서 1시간 20분째 <u>뺨</u> 치기를 하고 있는데요. / 뭐 지금 박영선 의원 기자 출신이니까 <u>뺨치기</u> 라고 기자들이 주로 언론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써 가면서 지금 한 시간이 십 분여 지금 이상을 서울구치소에서 이렇게 최순실 씨의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
| | 12월 27일 | 김은혜 | 최순실 씨가 구치소 내에서도 일명 <u>갑</u> 으로 불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
| | | 김성완 | 지금 뭐 <u>보안</u> 손님도 아니고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들어갈 텐데 |
| | | 김성완 | 그냥 일반적인 휴대전화 쓰지 않고 <u>대포폰</u> 쓴 걸로 다 나오잖아요. |
| | 12월 28일 | 김성완 | 그리고 난 다음에 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u>관피아</u> 척결이었습니다. |
| | | 고영신 | 이혜훈 의원으로서는 원래가 뭐 좀 <u>돌직구</u> 스타일 아닙니까? |
| | | 이진곤 | 정치권에서 뭐 <u>카더라</u> 식의 혹은 뭐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저 유언비어 이런 것을 생산해 내는 일은 없어야 되고. |
| | | 나경원 자막 | 그러면서 인제 신당이 가는 것은 이제 뭐 안보는 <u>우클릭</u> 뭐 경제는 <u>좌클릭</u> 이 개혁이다 이렇게 / ‘ <u>좌클릭=개혁</u> ’ 동의 못 하는 이유는 뭔가? |
| | 채널A <정연욱의 쾌도난마> | 12월 26일 | 김철근 |
| 12월 27일 | | 하태경 정연욱 | 두 평짜리 독방은 <u>범털</u> 이라 불러요 우리가 <u>범털</u> <u>개털</u> 이라고. 돈 없는 사람 <u>개털</u> 이고 돈 있고 백 있는 사람은 <u>범털</u> 이라고 부르는데. / 그러면 <u>범털</u> 형인가요? / <u>범털형</u> 이죠, 어 <u>범털형</u> 이고. |

2) 비속한(저속한) 표현, 비속어, 욕설

| 프로그램 | 방송일시 | 발화자 | 내용 |
|---------------------|---------|-----|---|
| JTBC <정치부 회의> | 12월 26일 | 양원보 | 자기 신분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u>현금</u> <u>박치기</u> , 뭐 시쳇말로 그걸 즐겨했다고 하는데. |
| | | 양원보 | 이 얼마나 <u>교양머리</u> 없어 보이는 장면입니까? |
| | | 양원보 | 인명진 카드가 <u>약발</u> 이 먹혔다 뭐 이런 평가가 당장 나오지 않겠습니까? |
| | 12월 27일 | 양원보 | 유 전 장관은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으면서 그냥 |

| | | | |
|---------------------|-----------------------------|-----|--|
| | | | 자르기부터 했습니다. |
| | | 양원보 | 이건 제 짐작이지만 아마 박 대통령은 이날 ‘아, 유진룡은 어떻게든 좀 <u>손을 봐야 되겠구나.</u> ’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 | 12월 28일 | 이상복 | 김영재 원장 측의 해외 진출을 돕지 않았다가 <u>잘렸다는 거 아닙니까?</u> |
| | | 양원보 | 소위 반정부 종북 좌파 문화인들을 슈아내서 정부 지원 끊고, 방송에서도 쫓아내고, 그야말로 <u>발줄을 끊어 놓겠다</u> 라는 문화계 숙청 사업입니다. |
| | | 양원보 | 블랙리스트 파문의 핵심은 ‘도대체 누가 이 대명 천지에 <u>이딴 걸</u> 작성하라고 시켰는가’일 것입니다. |
|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 | 12월 26일 | 차명진 | 세 번 출마했는데 떨어진 상황이니 지금 <u>눈에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u> 그래서 아마 최순실을 아마 유명하 변호사가 한 번 <u>세계 쫓일 것 같아요.</u> 대통령이 올린 사람을 다 <u>치우고</u> 다른 사람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
| | | 진성호 | 요즘은 뭐 <u>18월밖에 안 걸잖아요,</u> 사람들이. |
| | | 진성호 | 국제 수배령 <u>때리면은</u> 어떻게 금방 잡을 수 있습니까? |
| | 12월 28일 | 박종진 | 교도소장이 누구 <u>백</u> 믿고 그러겠어요? 차관 <u>백</u> 아니에요? |
| | | 하태경 | 1급 자를 때, <u>자르란</u> 얘기도 들었지. |
| | | 김동길 | 그럼 이거 다 <u>미친놈들이</u> 예요? |
| MBN <뉴스&이슈 > | 12월 26일 | 고영신 | 본인이 떳떳하게 나와서 <u>해 먹을 건 해 먹었고</u> 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 그런 시인을 해야지. |
| | | 진성호 | 아니 그 세다는 그 <u>이빨 입 세,</u> <u>이빨 센</u> 김성태 위원장으로 이런 분들이 박영선 의원 다 들어가 있는데도 지금 몇 시간째 아예 최순실을 불러내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
| | | 김성완 | 영국 국민 방문을 했을 때 화장대에서 이상한 모양체로 뭐 뒤에 조명을 <u>때리고</u> |
| | 12월 27일 | 손봉호 | 서로 지금 니가 나쁘다 넌 <u>나쁜 놈들</u> 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국민이 불안해서 못 삽니다. |
| | 12월 28일 | 한화갑 |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 얘기가 <u>먹어 들어가고</u> |
| | | 김근식 | 중요한 건 돈 있고 <u>백</u>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 교육 제대로 해야 됩니다. |
| 나경원 | 뭐 <u>육</u> 엄청 먹는 거 아는데 제가 뭐 | | |
| 채널A <정연욱의 쾌도난마> | 12월 26일 | 최병목 | 그러면서 육영재단을 통해서도 <u>돈을 많이 빼먹었</u> 을 거라는 게 그 조순제 씨 그 최태민 씨의 의붓 아들이죠, 아들인 조순제 씨 증언이예요. / 실질적으로 자기가 <u>돈 빼먹을</u> 이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u>돈 빼먹을</u> 라고 만든 거야 라고는 얘기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

| | | | |
|--|---------|-----|---|
| | 12월 27일 | 자막 | 뒷목 잡게 한 최순실 발언 |
| | | 하태경 | 돈 있고 백 있는 사람은 범털이라고 부르는데 |
| | | 정옥임 | 그래도 유진룡 장관이 제일 시원하게 말 잘하더라 그러더니 젤 먼저 찢리더라구요. |
| | | 고영신 | 딸에 대해서 지나친 어떤 집착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몰빵을 우리 속된 말로 몰빵을 헨 거 아닌가. |
| | | 정연옥 | 유병언 씨의 딸 유섬나 씨도 딱 지금 이 꼴이 날 수 있지 않겠느냐. |
| | | 김광덕 | 어쨌든 정유라 씨는 아까 우리 정두언 의원님 말한 것처럼 안 데려오면 인자 꺾이다. |
| | 12월 28일 | 최병묵 | 자기는 왕따를 당했는데 / 모색했다가 완전히 왕따가 돼 버렸어요. |
| | | 신지호 | 왜 국회 청문회는 아무 것도 안 한 나보러 나가 갖고 땀뺩하라 그러느냐. |
| | | 최병묵 | 이거는 다 아무, 아무것도 아니다 찢라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
| | | 신지호 | 쉽게 얘기해서 좀 간을 보고 있는 분들이예요. |
| | | 신지호 | 이 발언이 그렇게 막 저 좀 이렇게 정치인들이 약간 좀 뺩도 많이 치고 좀 그러잖아요. |
| | | 신지호 | 그니까 그때 새누리당에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아이구 요번 총선 우리가 대박이다 해 가지고 서로 공천 갖고 지지고 뷁고 싸우다가 결국은 쪽박 차 버린 거 아닙니까. |
| | | 이종근 | 문재인 전 대표가 왜 욕을 먹냐면 친문이 늘 패쇄성 때문에 패권주의 욕을 먹는데 지금의 흐름도 어떤 의미에서는 친문이 우리들끼리만 해도 가능하다. |
| | | 신지호 | 그니까 김영한 민정수석은 그러저러한 거 다 눈치 때려서 알고 있었을 텐데 |

3) 비하 표현, 차별적 표현

| 프로그램 | 방송일시 | 발화자 | 내용 |
|------------------|---------|-----|---|
| JTBC <정치부 회의> | 12월 26일 | 정강현 | 초등학생들도 친박, 비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명진 위원장이) 새누리당 초선 위원들이 친박 비박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좀 현실 인식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 12월 27일 | 양원보 | 왜냐면 (최순실 씨가) 또 뭘 짓을 할지 모르니깐 요. |
| | | 양원보 | 그나마 다행이라면 인제 체육관 화장실은 온전했던 것 같습니다. 변기를 뜯어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

| | | | |
|------------------|---------|---------|--|
| | 12월 28일 | 정강현 | 개보신당으로 하자니 어감이 아무래도 걸립니다. / 당초 바른보수신당이란 당명도 검토했는데 약칭으로 바보당으로 불릴 우려가 있어서 접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보당을 피했더니 개보신당이라는 약칭과 마주친 겁니다. |
| | | 정강현 | 만약 엄지에 침을 발라 표를 세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면 개혁이든 보수든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걸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
| | | 양원보 | 오늘 아침에 야사가 전해졌습니다. |
| | | 양원보 | 메이크업 전문가도 아닌 김영재 원장의 부인에게서 박 대통령이 화장품 사용법, 색조 화장품 사용법을 뭐 들어야 하는 건지. |
| | | 양원보 |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김기춘 씨가 박 대통령을 총동질해서 그런 의지를 꺾어냈다는 겁니다. |
| | | 양원보 | 저 사람이 평소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겠죠. |
| | | 양원보 | 최순실 게이트가 우리에게 던져 준 정말 소중한 교훈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
| | | 양원보 이상복 | (임소라: "조운선 의원이 얼굴이 얼짱이다. 닭고기는 싶은데 닭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했고요.) 가슴 아픈 얘기네요. / 닭을 순 없죠. |
|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 | 12월 26일 | 구상찬 박종진 | 그게 이제 김포공항 장애라는 거죠. / 아, 김포공항 장애입니까? |
| | | 박종진 | 매일 같이 골프 친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김민전: 최순실 씨가 본인이 공항 장애라고, 공항장애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
| | | 차명진 | 최순실 씨도 지금 구치소에서 대답하는 걸 봐도 그렇고, 김선동 의원도 그렇고 요즘 신문을 안 보는 것 같아요. 방송을 안 보는 것 같아요. |
| | | 박종진 | (패널에게) 공부 잘 해서 서울대 갔잖아요. 근데 이게 맞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 에이, 참. 공부한 사람들이 왜 그래요. / (다른 패널에게) 여기도 서울대 외교학과 나왔죠. 가장 중요한 문제 맞아요? |
| | | 박종진 | 가장 중요한 문제는 1번 태블릿 PC 입수 경위, 2번 뒤 우병우, 3번 뒤 최순실의 국정 하명은 답 이렇게 쓰면 수능 맞습니까 답? /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하면 최 씨가 1, 2, 3, 4, 5 수능 시험에서 3번, 2번 이렇게 했답니다. |
| | | 차명진 | 최순실을 그냥 옷 맞춰 주는 기미상궁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

| | | | | |
|---------|----------------|---------|---|--|
| | | 차명진 | 거의 그 무능한 군주와 뒤에서 섭정하는 상궁. 그 관계인 것 같애, 저가 볼 때는. | |
| | | 진성호 | 유리 지갑인 월급쟁이들만 기분 나쁩니다 지금. / 월급 1억 받는 월급쟁이들. | |
| | 12월 27일 | 김진 | 일개 민주당원 아닙니까. / 일개 시민인 문재인 씨를 왜 일선 전방 부대장이 형식과 예우를 갖춰서 왜 영접을 하느냐. | |
| | | 박종진 | 자필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연설문을 고치고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했던 사람의 국어 실력이 이 정도인가. | |
| | 12월 28일 | 김경진 | 공항, 에어포트 장애. | |
| | | 김경진 | 검찰은 고발장이 들어오고 나서 한 달 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가 한 달 만에 미적미적 나가가지고 압수 수색을 하는 등 마는 등. / 교도소에서 우리한테 했던 불쾌한 짓들. / 시키는 짓은 뭐냐하면 온갖 비루한 일의 집사 시키는 것 아니에요. | |
| | | 김경진 | 애들이 생매장돼서 이렇게 죽어 들어가는 데도 대통령은 아무 생각 없이 멍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 이 생각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이게. | |
| | | 김동길 | 나라를 이 꼴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 그런 것도요, 나는 꼴 보기 싫어요. | |
| | | 김동길 | 무슨 할 게 없어서 그걸 해요? | |
| | | 김동길 |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 |
| | MBN <뉴스&이슈> | 12월 26일 | 주호영 | 한국의 정치인들이 천덕꾸러기가 됐지 않습니까. |
| | | | 김성완 | 그니까 저렇게 그냥 막고 들어가겠다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수준 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
| | | | 진성호 | 그렇지만 법률 미꾸라지라는 비판을 받는 우병우 씨는 그럴 겁니다 |
| | | | 김은혜 자막 |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을 늙은 너구리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 “최순실은 김기춘을 ‘늙은 너구리 같은 사람’이라 해” |
| 김성완 | | | 이걸 보면은 박 대통령이 인지 장애가 있었나 왜 그럴까 | |
| 12월 27일 | | 김은혜 | 오늘 야당은 그 밥에 그 나물이다 혹평도 하던데요 | |
| | | 자막 |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당신을 ‘시녀같이 심부름이나 하던 사람이고 자기와는 눈도 못 맞췄다’고 했다” | |
| | | 김성완 | 달리 법률 미꾸라지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 |
| | | 신지호 | 그니까 스스로 무능 기춘을 자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망신살이 뺨치고 뭐해도 상관없 | |

| | | | |
|-----------------------|---------|-----------|---|
| | | | 다. 하여간 법망만 피해 나가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
| | | 최병목 | 왜 과거에 김무성 전 대표가 그런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거기는 동메달이다. 영남 호남은 동메달이다. |
| 채널A <정연욱의 꽤도난마> | 12월 26일 | 여상원 | 최순실은 자기 시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국가의 왕이 백성의 재산이 전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시녀 재산이 자기 거죠 뭐. 최순실은 90분 정도 저희와 이야기하는 동안에 사이코패스 연기를 했습니다. |
| | 12월 27일 | 자막 | 제가 볼 때는 인제 최순실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가 좀 욕심이 많고 자기 아이만 뭐 불법을 감수해 가면서 챙기고 또 능력이 많지 않고 글자도 자꾸 틀리고 한심하고 이런 이미지가 좀 복합되어 있는 거 같아요. |
| | | 하태경 | 그런데 일부 의원이 대통령은 최순실을 시녀처럼 봤다 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정말 그렇게 하셨느냐 / “최순실, 대통령 시녀 발언에 섭섭함 드러내” |
| | | 정연욱 자막 | 아직은 나이도 어린 데다 감정 절제 조, 능력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모든 걸 털어놓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
| | | 고영신 | 자기가 그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임신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걸 임신했다고 SNS에 올리고 자기 부모가 어떤 식으로 부부 싸움을 했는지를 얘기하는 철없는 소녀에서 지금 성인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최순실 씨 측에서는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
| | | 정연욱 | 지금 조금 전에 정우택 원내 대표가 좀 약간 좀 뭔가 좀 깎아 내릴려고 지금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
| | | 정연욱 | 여자 의원들 얘기하면서 인제 눈물 흘린다 이런 얘기하면 같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좀 민망합니다. 올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
| | | 정연욱 |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이 중간에 낀 김영한 민정수석은 뭐 바보 취급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
| | 12월 28일 | 최병목 | 그 최근 동향 같은 거는 자기네들 댁에도 취재를 좀 해서 그걸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요. |
| | | 정연욱 |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 수첩에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당시에 인간쓰레기를 슈아 내라 그러니까 인제 딱 편을 지어서 갈라치기를 해야 되겠다 |
| | | 이현종 | 결국 정윤희 씨가 어떤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측 |

| | | |
|--|-----|---|
| | | 근에 있는 거에, 있으니까 <u>그 최순실과 그것들은</u> 인제 시기가 했다는 것이죠. |
| | 신지호 | 오히려 뭐 <u>반반이고 기름장어고 애매한 화법이고</u> <u>그렇대지만</u> 그게 아니라는 거죠. |

4) 과장된 표현

| 프로그램 | 방송일시 | 발화자 | 내용 |
|---------------------|---------|------------|--|
| JTBC <정치부 회의> | 12월 26일 | 자막 | <u>오우 메이드 인 코리아 굿굿굿굿굿</u> |
| | | 임소라 자막 | 이제는 무슨 <u>강박증</u> 같은 게 있나 하는 얘기들이 <u>아주 심각하게 공공연히</u> 얘기될 정도구요. / <u>변기·호텔 논란…박 대통령은 강박증?</u> / 특히 대통령의 <u>짖은 변기 교체</u> 문제는 <u>강박증과 관련이</u> 있을 거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
| | | 정강현 |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때, <u>깨져도 몇 번은 깨졌</u> 어야 할 당이 이제야 분당에 이르게 된 겁니다. |
| | | 정강현 | 분당 직전까지도 <u>친박과 비박은 나는 천사</u> , 당신은 <u>악마</u> 라는 식의 <u>선악의 잣대</u> 를 들이대며 싸우고 있습니다. |
| | 12월 27일 | 정강현 | 가칭 개혁보수신당을 창당하기로 한 비박계는 <u>잔뜩</u>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
| | | 정강현 임소라 | 사실상 <u>친박당으로</u> 쪼그라든 새누리당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지역적으로는 새누리당이 <u>TK와 충청권 정당으로 쪼그라들게</u> 됐고요. |
| | | 정강현 | 보수신당 출범의 의미를 <u>애써 깎아내리는</u> 모습이 있습니다. |
| | | 양원보 | 29명, 30명. 뭐 <u>한 명</u> 차이지만 어감 차이가 <u>확</u> 나지 않습니까? |
| | | 양원보 | 알다시피 <u>지금 청와대</u>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u>완전 중복</u> 가수 아닙니까? |
| | 12월 28일 | 정강현 | 그래서 <u>반 총장을 반드시 영입해서</u> 대선 경선의 판을 키워야 한다는 <u>절박감</u> 이 있습니다. |
| | | 정강현 | <u>진짜 보수</u> 라는 말로 <u>잔뜩 포장</u> 을 했지만 결국 차기 대선을 노린 <u>승부수</u> 라는 걸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
| | | 양원보 | <u>안민석</u> 의원이 <u>4선</u>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u>초선인 줄</u> 알아요. <u>4선</u> 째에 처음으로 <u>정치적인 전성기</u> 를, <u>13년</u> 만에 지금 맞고 있습니다. |
|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 | 12월 26일 | 박종진 | (구상찬: 그 돈이 <u>박정희</u> 대통령 때부터 내려왔던 <u>돈일</u>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100%죠, 100%. |
| | | 박종진 | (헌경병: 그리고 지금 <u>최순실</u> 씨가 지금 <u>국조특위</u> 에서 한 말만 해도 <u>명백한 거짓말</u> 들이 여러 개 |

| | | | |
|--------------------|---------|---|---|
| MBN <뉴스&이슈 > | | |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죠. |
| | | 구상찬 | 처음에 첫, 그 아마 언론에 데뷔하는 작으로는 너무 잘못 골랐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 | | 진성호 | 큰 특종의 반은 뭐냐 하면 흠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 방에 들어가서, 뭐 저도 기자 출신이니까, 흠쳐서 특종하고. |
| | 12월 27일 | 김진 | 아니, 법전이 없었으면, 법이라는 게 없었으면 문재인이라는 인생이 없는 겁니다. |
| | | 김진 | 우리 언론이 보도한 거의 다섯 배, 열 배 정도로 충격이 큰 사건입니다. |
| | | 김진 |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방화로 인해서 불타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직전에 가짜 썬은 보수를 불태워 버리라는 얘기를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했던 겁니다. |
| | | 김진 | 노무현 정권 때 그 참혹한, 부도난, 부도난 정권의 2인자였다는 책임을 다 감수하고, 내가 그때는 그 회사의 부사장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경영 플랜이 있으니까 투자자들이시여, 나에게 다시 투자해 달라 하는 호소를 할 수 있는 그림을 내놔야 된다. |
| | | 김성태 | 그런 자세와 태도는 손톱 끝만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
| | | 박종진 | (최순실 씨 흉내를 내며) “나 갈래!” 그래요? “나 싫어, 갈래!” 그래요? / “나 갈래!” 그래요? / “나 갈래!” “세월호 당일날 기억을 어떻게 해!” |
| | | 박종진 | 오히려 빌었군요. / 오히려 빈 거죠, 그럼. |
| | 12월 28일 | 하태경 | 배제됐으면, 북한말로 숙청됐으면 그런 거 못 하죠. |
| | | 김경진 | 지금 말씀하신 게, 저 ‘맞불집회’, ‘애국 단체’ 주장하는 사람들이 최순실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
| | | 하태경 | (최순실) 어, 이 사람 작전 지휘하고 있다. |
| | | 하태경 | 그 내용을 지금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예언서예요. 완전히 정감록이에요. 100% 똑같아요. |
| 김경진 | | 아니면 지극히 무능했거나. | |
| 박종진 | | 너희들은 당을 만들 자격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을 만들 자격도 없으니까 다 해체해라. | |
| | 12월 26일 | 김은혜 | 신당의 숫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정말 국민들한테는 다시는 이 같은 불운이 악연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느낌일 텐데요. |

| | | | |
|-----------------------|---------|---|---|
| | | 진성호 | 그래서 지금 뭐 최순실 구치소냐 뭐 <u>최순실 보호소</u> 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
| | | 고영신 | 그리고 뭐 (최순실 씨가) 레이저 광선 쓰는 그런 뭐 모습도 보여줬고 |
| | | 김성완 | 저는 <u>막장드라마</u> 가 생각났어요. <u>막장드라마</u> 에 저런 거 나오잖아요. |
| | | 진성호 |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다녀가고 고스톱까지 칠 정도면 <u>어마어마하게 친한 사이</u> 아닙니까? |
| | | 김은혜 |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최순실 씨가 문화체육부의 <u>여러 고위직들을 쥐락펴락하는 데</u> 도움을 준 건 아니었는지 |
| | | 고영신 | 말하자면 최순실 씨가 문체부를 <u>주물럭거릴 수</u> 있도록 미리 미리 자락을 깔아 놓은 것 아니냐 |
| | 12월 27일 | 손봉호 | 우리나라가 다른 모든 면에서는 선진국인데 딱 도덕성에만 매우 매우 후진국입니다. <u>아프리카의 보스니아</u> 보다 더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나라예요. |
| | | 손봉호 | 저는 세종시는 이걸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u>두 분 대통령 만들기</u> 위해서 만들어진 괴물이다. |
| | | 손봉호 | 얼마 전에 어떤 일본인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u>한국인은 숨 쉬듯 거짓말을 한다.</u> |
| | | 신지호 | 그야말로 언제든지 그냥 대통령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국정을 <u>주물럭주물럭</u> 했던 그런 최순실 씨 때문에 인제 |
| | | 신지호 | 단순히 뭐 당적을 박탈하는 정도가 아니구요 <u>국회의원 배지를 떼게</u> 만들어야 돼요 |
| | | 신지호 | 지금 그 나온 얘기 보면 개헌이 대선 전에 쉽지 않다. 이걸 뭐 다 그 세 살배기 어린애도 다 알아요. |
| 12월 28일 | 한화갑 | 근데 지금까지 자기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건 <u>우리 민족이 그만큼 역량이</u> 없단 얘깁니다. | |
| | 김은혜 | 그러니까 재벌 사모님들한테 들어 보니까 <u>조윤선 장관이 마치 최순실을 여왕님</u> 모시듯 하면서 재벌 사모님 앞으로 데려왔단 얘깁니다 | |
| 채널A <정연욱의 꽤도난마> | 12월 26일 | 자막 | 증인 없는 '맹탕 구치소 현장 청문회'? / 19년 만에 이뤄진 구치소 청문회...맹탕 되나? |
| | | 김홍국 | 미용실에 소개를 했던 분이 독일에 승마 학교를 만들러 왔는데 한국에서는 재계 서열 이십사위권이다. <u>다시 말해서</u> 역대, 엄청난 거죠. 롯데 그룹의 <u>신동빈 회장 개인 재산</u> 으로는 그 정도 수준이구요. 그리고 기업으로는 미래에셋이 11조입니다. <u>자산이</u> 그러니까 거의 뭐 미래에셋 이상 가는 정 |

| | | | |
|--|---------|-----|--|
| | | | 도의 재산을 보유한 그런 정말 한국의 엄청난 거물이 왔다라고 소개를 했대요. |
| | | 정연욱 | 이거 지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
| | | 자막 | 김해호 “최순실, 입만 열면 거짓말했다” |
| | | 김홍국 | 엄청난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은 불렀다고 봐야 되는 거죠 |
| | | 자막 | 최태민 죽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최순실 자매 재산 |
| | | 자막 | 금고 주변에 개미 한 마리 얼씬도 못 하게 지켜 |
| | | 김철근 | 반기문 총장이 드디어 구름 위에서 땅 위로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 | 12월 27일 | 자막 | 최순실, 독일 재산에 대해 “한 푼도 없다” |
| | | 허성무 | 이 안종범 수석이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엄청난 괴리감 같은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자괴감도 있고. |
| | | 정연욱 | (딸에 대해서 지나친 어떤 집착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몰빵을 우리 속된 말로 몰빵을 헨 거 아닌가) 올인을 했다 |
| | 12월 28일 | 이현종 | 결국 인제 새누리당은 좀 쪼그라들고 그 다음에 인제 총, 충청권 의원들 탈당하고 |
| | | 최병묵 | 그냥 들어와서 자 나는 뭐 성총권에서 내려왔으니까 자 내 앞으로 다 일렬로 줄 서라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
| | | 신지호 | 그야말로 문재인 대표는 낡고 병든 이 1987년 체제를 이대로 쪽 갖고 와서 그 시스템으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고 |

5) 폭력적 표현, 과격한 표현

| 프로그램 | 방송일시 | 발화자 | 내용 |
|------------------|---------|------------|--|
| JTBC <정치부 회의> | 12월 26일 | 이상복 | 특검이 아예 바로 치고 들어가네요? |
| | | 임소라 이상복 | 특위 위원들이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뭐 이런 심정으로 지금 수감동에 갔는데 / 쳐들어가는 거죠? / 특위 위원들은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면서 최 씨의 수감동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
| | | 이상복 | 박헌영 과장의 폭탄 발언이 이어지면서 파문이 뭐 상당할 거 같고요. |
| | | 최종혁 | 왕실장 김기춘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
| | | 정강현 | 박 특검이 수사 초기부터 김 전 실장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입니다. /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조준 |
| | 12월 27일 | 정강현 | 결국 보수신당의 파괴력은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영입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 | | 정강현 | 보수에 대한 강박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 수 |

| | | | | |
|---------|------------------------|--|---|--|
| | | | 준인데. | |
| | | 정강현 자막 | “내가 인격이 여물지 못해서 혹시 청문회를 나갔다가 김기춘 씨를 보고 <u>따귀를 때릴까봐</u> , 하다못해 <u>뒤통수를 때릴까봐</u> 청문회를 나가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 유진룡 “김기춘 <u>따귀 때릴까봐 불참</u> ” | |
| | | 이상복 | 유 전 장관 인터뷰를 쭉 보면은 대통령에 관한 얘기도 뭐 있습니다마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많이 이제 좀 <u>겨냥한</u> 것 같아요. | |
| | 12월 28일 | 자막 | 김영재 압수수색...세월호 7시간 정조준 | |
| | | 이상복 | 저는 진짜 <u>미개한</u> 사회라고 봅니다. | |
| | | 이상복 | 저는 아주 <u>충격적으로</u> 봤어요. | |
| | | 이상복 | 이제 <u>영장을</u> 친단 얘기인데. | |
| | | 이상복 | 다시 아마 <u>역공</u> 을 취한, 그런 모양새로 보이고요. | |
| | | 이상복 | 지금 이제 <u>특검이</u> <u>겨냥하고</u> 있는 사람 중에 박 대통령을 제외하고서는 <u>현직</u> 최고의 인사라고 보여지거든요. | |
| | | 이상복 | 개혁보수신당 이해훈 의원의 <u>전투력</u> 이 대단하네요. | |
| | | 이상복 | 겉으로만 보면은 마치 칭찬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정말 <u>비수가</u> 들어있네요. | |
| | 최종혁 | 정운회 문건 재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의 <u>칼날</u> 도 결국에는 김기춘, 우병우 두 사람을 <u>정조준</u> 하고 있습니다. | | |
| |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 | 12월 26일 | 진성호 | 국민들이 열 받을 수밖에. / 열 받네요, 좀. |
| | | | 차명진 | <u>까보면</u> <u>엎어버린다</u> . |
| | | 12월 27일 | 박종진 |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u>포문을</u> 열면서 대선 <u>혈투</u> 의 막이 올랐습니다. |
| 김진 | | | 박근혜 대통령을 <u>빨가벗기다시피</u> 지금 파헤치고 있잖습니까. | |
| 김진 | | | 이것은 사실 그 우리 한국의 지식인 사회가 <u>덜버</u> 들어서 이 발언의 어떤 그 근거라든가 본질, 그리고 파장을 짚어서. | |
| 김진 | | | 법을 아주 기본적으로 <u>깡그리 무시</u> 해요. | |
| 김진 | | | 한 마디로 <u>깡아뭉</u> 겠습니다. / 한 마디로 법을 완전히 <u>깡그리 무너뜨리는</u> 거예요. | |
| 김진 | | | 이것은 <u>선동</u> 이자 <u>자극</u> 이다. | |
| 12월 28일 | | 김경진 | <u>컴퓨터</u> 가지고 가서 망치로 하드 디스크 <u>깨 버리고</u> 내부 같은 거 못 쓰게 다 <u>깨 버려라</u> 시킨 거 아니에요. | |
| | | 박종진 | 특검팀이 <u>정조준</u> 한 다음 타겟은 뭘까요? 네, 특검팀이 <u>정조준</u>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 |
| | | 하태경 | 그래서 김영한 비망록을 보면 <u>단죄</u> , <u>응징</u> , <u>보복</u> | |

| | | | |
|----------------|---------|-----------|---|
| | | |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
| | | 박종진 | 유진룡 전 장관이 청문회 불출석한 이유를 <u>김기춘 보면 따귀 때릴까봐 그랬다</u> 얘기는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엄청나게 시달린 모양이에요. |
| | | 김경진 | 그러니까 지금 현 박근혜 정부의 대부분의 장관이나 수석들이, 좀 격하게 비난을 하면 내시들이예요. |
| | | 박종진 | 박영수 특검팀이 또 <u>칼날을</u> 무엇을 <u>겨루고</u> 있을까요? |
| | | 김경진 | 국립 대학 총장 임명 신청서 서류가 들어가면 몇 달씩 아예 그냥 <u>밖에 처박혀</u> 있는 거예요, 보면. |
| | | 김경진 | 비서실장 한 번 <u>뚝</u> 하고 <u>전화하고</u> 서류 보고 들어가고, 안보실장 해서 서류 관저동하고 집무동 하나씩 던지고. |
| | | 김동길 | <u>뭘 해, 하기는.</u> |
| | | 김동길 | <u>웃기지 말라</u> 그래요. |
| | | 김동길 | <u>박근혜 대통령 무슨 정치를 그따위로 했어요.</u> |
| | | 김동길 | 평화 시위하고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을 <u>미친 사람들로</u> 보면 안 됩니다. |
| MBN <뉴스&이슈> | 12월 26일 | 김은혜 자막 | 지금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분들만 골라서 특검이 정조준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 특검, 김기춘 수사 착수...최순실 비호 의혹 <u>정조준</u> |
| | | 이현중 | 근데 특검이 오늘 인제 갑자기 조윤선 장관의 직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급습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싶은데 |
| | | 자막 | ' <u>칼날 세우는 특검</u> ', 김기춘·조윤선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
| | | 진성호 | 조윤선 장관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u>칼을 겨누는</u> 또 다른 증거를 갖다 찾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
| | | 김성완 | 고린 부분을 좀 <u>겨냥</u>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 | | 이현중 | 문고리 삼인방이 이 김기춘 실장을 좀 <u>제거해야</u> 되겠다는 그런 인제 음모를 합니다. |
| | | 김은혜 | <u>참 기세 싸움</u> 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가에서는 벌써 조기 대선이 가열이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
| | | 자막 | 노회찬, 반기문 <u>겨냥</u> "촛불 안 들어보고 어떻게 몸 불사르나" |
| | 12월 27일 | 김은혜 | 당장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라라고 친박의 대표적인 분들에 대해서 <u>직격탄을</u> 날리셨는데 |
| | | 김은혜 자막 |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김기춘 전 실장 <u>따귀를 때릴 거 같아서</u> 라고 하던데 / "인격이 여물지 못해서 혹시 나갔다가 김기춘 보면 혹시 <u>따귀를 때린다</u> 든가, 하다못해 <u>뒤통수</u> 때릴 수 있는 |

| | | | |
|-----------------------|----------------|------------|--|
| | | | 사고를 일으킬 수 있겠다 싶어서...” |
| | | 김성완 | 지금 나오는 얘기가 <u>그 죽은 김영환이 산 김기춘을 잡을 거다</u> 이런 얘기가 특검팀 내부에서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
| | 12월 28일 | 자막 | <u>문재인 때리기</u> 나선 유승민, 유력 대권 주자 견제? |
| | | 한화갑 | 내가 지지한 걸 같이 지지 안 해 주면 그거 <u>역적</u> 이고 지지하면 동료고 이런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합치가 되고 되겠습니까. |
| | | 김은혜 | 오늘 여성 의원 그리고 여성 장관의 <u>난타전</u> 이 벌어졌습니다. |
| | | 김근식 | 지금 <u>조윤선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돼</u> 가지고 엄청난 지금 특검이 <u>칼날을 겨누고</u>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
| 나경원 | 자꾸 싸움 붙이지 말구요. | | |
| 채널A <정연욱의 꽤도난마> | 12월 26일 | 정연욱 자막 | 네 자 최병목 편집장님 지금 이게 뭐 한 나오면, 안 나오면 <u>쳐들어간다</u> 뭐 이 얘기에요 지금 그리고 안 나오니까 <u>쳐들어가겠다고</u> 일단 들어갔는데 / ‘안 나오면 <u>쳐들어간다?</u>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
| | | 자막 | 안민석 “ <u>최순실 독방에 뱀·쥐 넣으라는 게 국민 정서</u> ” |
| | | 김홍국 | 다시 말해서 <u>비밀 이 결사 조직 사조직처럼</u> 집안의 모든 부분들 결국은 그 돈은 부정한 돈이었다. |
| | | 최병목 여상원 | <u>악, 악마의 변호사</u> 라고 / 본래 그걸 우리 법원에서 <u>악마의 증명</u> 이라 그러는데 |
| | | 여상원 | 이걸 갖다가 그냥 인권 <u>탄압</u> 내지 뭐 정치적 <u>박해</u> 로 이렇게 돌립니다. |
| | 12월 27일 | 하태경 | 아니면 여기 <u>쳐들어온다</u> 니까 그럼 더 곤란하지 않습니까? |
| | | 고영신 정옥임 | 그런데 정유라 씨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만약 국내에 소환된다면 어 최순실 씨로서는 <u>폭탄이죠.</u> /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은 저 거의 <u>폭탄급이죠.</u> |
| | | 자막 | ‘강제송환 반발’ <u>소송전</u> 땀 수사기간 내 소환 쉽지 않아 |
| | 12월 28일 | 자막 | 김기춘, ‘ <u>인간쓰레기...조용천·박관천 겨냥?</u> ’ |
| | | 이현종 | 결국 그것이 김기춘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완전히 인제 사건이 <u>되치기당하는</u> 그러면서 역공을 당하는 인제 그러한 걸로 바뀌니까 |
| | | 자막 | 반기문 “ <u>한 몸 불사를 용의 있어</u> ” 출마 공식화 |
| | | 정연욱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출마가 이제 기정사실화되면서 야권의 반응도 상당히 조금 <u>날이 서</u> |

| | | | |
|--|--|-----|--|
| | | | 기 시작했습니다. / 말은 가장 편하게 들리는데 가장 날이 서 있는 |
| | | 이현종 | 지금 안희정 지사의 역할은 충청도를 갈라치는 역할이에요 |
| | | 자막 | 文 측근, 반기문 향해 ‘맹공’ |
| | | 자막 | “말년 험하게 되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명예를 지키고 여생을 편하게 사는 게 좋을 것” |
| | | 자막 | 안희정, 반기문에 직격탄 “기회주의자는 안 돼” |
| | | 정연욱 | 이게 참 <u>자꾸 열불을 지르는 거예요.</u> |

6) 선정적 표현

| 프로그램 | 방송일시 | 발화자 | 내용 |
|---------------------|---------|-----|--|
|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 | 12월 27일 | 김진 | 촛불집회에서 “가짜 썬은 보수를 불태워 버려야 한다.” 공교롭게도 아무런 인과 관계는 없겠지만 지금도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실화인지 방화인지. 어쨌거나 그 말이 있던 직후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큰 불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가 생겼었습니다. |
| MBN <뉴스&이슈 > | 12월 26일 | 자막 | 김무성-유승민 <u>아슬아슬한 동거?</u> 보수신당의 앞날은? |
| | 12월 27일 | 김은혜 | 이게 총선에 의한 국민의 민의가 아니라 일단 별거를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갈등 때문에 서로 갈라서게 된 건데 |
| | 12월 28일 | 한화갑 | 아 요새는 <u>이혼하고 이 재혼 삼혼 사혼한 사람도 있는데</u> 옛날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누가 현실 감각에 맞는 얘기를 하느냐. |